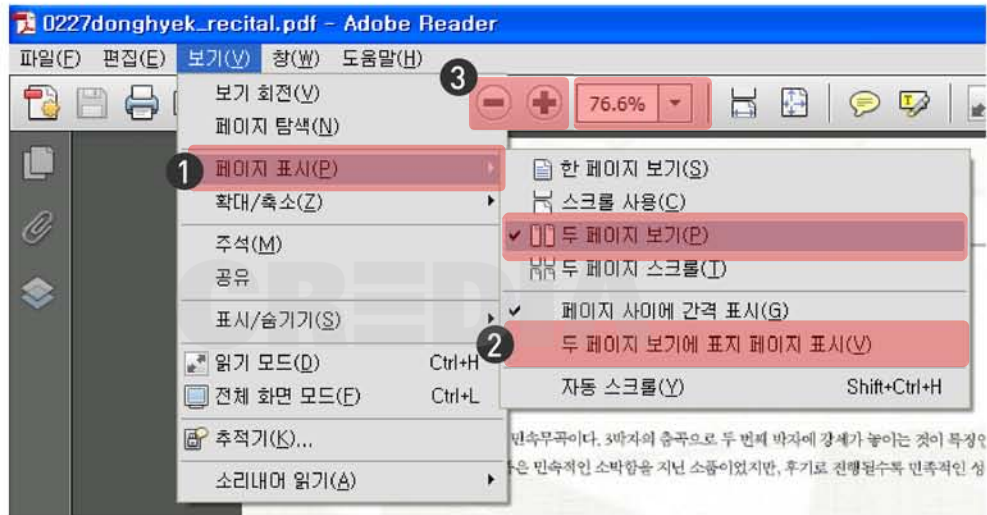


CRE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EVGENY  
KISSIN  
PIANO  
RECITAL

ANTONIO PAPPANO —

SEONG-JIN CHO —


DANIL TRIFONOV —

#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 안토니오 파파노

협연: 다닐 트리포노프, 조성진

11.15 **thu** | 11.16 **fri** |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CREZIA 후원 |  KOREAN AIR 티켓 | R석 28만원 | S석 23만원 | A석 18만원 | B석 12만원 | C석 6만원 예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프로그램 | 11.15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미라' 서곡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다닐 트리포노프) |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 11.16 베토벤 교향곡 2번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조성진) | 베토벤 교향곡 5번

---

**CREDIA**  
MUSIC & ARTISTS

---



클럽발코니 유료회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 공연장 매너 이야기

공연장에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여유를 즐겨주세요.



악장 사이 박수는  
극의 흐름을 방해해요.



앞자리를  
발로 차지 마세요.

휴대폰은 잠시  
꺼 두셔도 좋습니다.



공연장 내에서의  
음식을 섭취는  
안돼요.



크레디아 기획공연 관람 전  
유료회원 모바일 카드를 보여주세요!  
프로그램북을 증정 합니다.

(안, 클럽발코니에서 예매방해하신 분에만 해당됩니다.)



15만 공연 애호가들의 선택

JOIN  
CLUBBALCONY

예매고수의  
 노하우!

-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 문화애호가들의 필수품, Club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 회원카드 지참시 기획공연 크레디아 프로그램북 증정
-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 1년 3만원, 5년 12만원, 10년 20만원! 만료 후 재가입시 할인 혜택

www.clubbalcony.com | 1577-5266

# EVGENY KISSIN PIANO RECITAL

예프게니 키신 피아노 리사이틀

2018.10.28 (SUN) 5PM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주최 **CREZIA** 후원 **KOREAN AIR**  
INTERNATIONAL

# PROGRAM

2018.10.28 (SUN) 5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노 | 예프게니 키신

## 쇼팽

(폴란드, 1810 - 1849)

녹턴 f단조 Op. 55-1  
녹턴 E장조 Op. 62-2

## 슈만

(독일, 1810 - 1856)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Op. 14

- I. 알레그로 (빠르게)
- II. 스케르초
- III. 과지 바리아치오니 (변주곡 풍으로)
- IV. 프레스티시모 포시빌레 (가능한 매우 빠르게)

## 중간휴식

## 라흐마니노프

(러시아, 1873 - 1943)

프렐류드 Op. 23 중

- 1번 f#단조
- 2번 Bb장조
- 3번 d단조
- 4번 D장조
- 5번 g단조
- 6번 Eb장조
- 7번 c단조

프렐류드 Op. 32 중

- 10번 b단조
- 12번 g#단조
- 13번 Db장조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STEINWAY  
LYNGDORF

[www.steinwaylyngdorf.com](http://www.steinwaylyngdorf.com)



우리가 모르고 지내왔던 것들

**ODE Maison**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15-6  
02-512-4091

**ODE Daegu**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대구 신세계백화점 5F  
053-661-6504

**ODE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서길 7  
064-799-5008

O D E

[www.ode-audio.com](http://www.ode-audio.com)

# PROGRAM

2018.10.28 (SUN) 5PM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Piano | Evgeny Kissin

---

## F. Chopin

(Poland, 1810 - 1849)

Nocturne Op. 55-1 in f minor  
Nocturne Op. 62-2 in E major

---

---

## R. Schumann

(Germany, 1810 - 1856)

Piano Sonata No. 3 in f minor, op. 14

I. Allegro  
II. Scherzo  
III. Quasi Variazioni  
IV. Prestissimo possibile

Intermission

---

---

## S. Rachmaninoff

(Russia, 1873 - 1943)

Prelude Op. 23

No. 1 in f-sharp minor  
No. 2 in B-flat major  
No. 3 in d minor  
No. 4 in D major  
No. 5 in g minor  
No. 6 in E-flat major  
No. 7 in c minor

---

Prelude Op. 32

No. 10 in b minor  
No. 12 in g-sharp minor  
No. 13 in D-flat major

---

Evgeny Kissin appears by arrangement  
with IMG Artists, 152 W. 57th St. 5th  
Floor, New York, NY 10019.

Mr. Kissin records for EMI Classics,  
Deutsche Grammophon, and RCA Red  
Seal/Sony BMG Masterworks.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CROATIA

아드리아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 지중해를 건너 또 다른 크로아티아를 만나다

대한항공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주 3회 신규 취항

**KOREAN AIR** 

[www.koreanair.com](http://www.koreanair.com)







CREPIA



# EVGENY KISSIN

##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

예프게니 키신의 음악성과 깊이 있는 해석, 시적 감성,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테크닉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으며, 그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피아니스트 중 가장 뛰어난 연주자로 평가 받고 있다. 세계 전역에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키신은 지금까지 아바도, 아쉬케나지, 바렌보임, 도흐나니, 줄리니, 레바인, 마젤, 무티, 오자와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과 연주하였으며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음은 물론이다.

1971년 10월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키신은 두 살이 되던 해, 들은 음악을 그 자리에서 피아노로 연주하여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아노를 처음 배우게 된 키신은 여섯 살에 그네신 음악원의 영재특수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여기에서 그의 유일한 피아노 선생인 안나 파블로나 칸토르를 만나게 된다. 열 살 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K. 466을 협연하며 생애 첫 공식 연주를 하였으며, 이듬 해에는 모스크바에서 첫 솔로 리사이틀을 열었다. 키신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4년 3월, 드미트리 기타옌코 지휘로 모스크바 국립 필하모닉과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을 협연했을 때였다. 멜로디아를 통해 발매된 이 공연의 실황 음반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후 5장의 공연 실황 음반이 추가로 발매되었다.

키신의 첫 해외 리사이틀은 1985년 있었던 동유럽 순회 공연이다. 이후 1986년 첫 일본투어, 1988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의 베를린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1990년 BBC 프롬스 데뷔, 같은 해 주빈 메타 지휘의 뉴욕 필하모닉 협연을 통한 북미 데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1990년, 뉴욕의 상징적인 공연장인 카네기홀 100주년 기념 공연의 첫 스타트를 불과 19살의 키신이 맡았다는 것은 당시 그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이 공연은 BMG 클래식스에 의해 실황 녹음 되었으며,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렸다.

예프게니 키신은 2018/19 시즌을 밴쿠버와 샌프란시스코 리사이틀 공연으로 연다. 이후 대만, 홍콩, 서울, 요코하마, 도쿄, 오사카를 아우르는 리사이틀 투어가 예정되어 있으며,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아시아 투어 협연자로도 함께 한다. 유럽에서는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체코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등과 협연하며, 쇼팽/슈만/드뷔시/스크라빈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리사이틀이 유럽과 북미 주요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차크 펠만과 함께하는 듀오 공연도 보스턴, 뉴욕, 워싱턴DC, 시카고에서 열리게 된다.

키신에게 쏟아진 음악상과 영예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1986년, 첫 일본 투어 후에는 오사카 심포니 홀에서 수여하는 크리스탈 상을 받았으며, 1991년에는 매년 국제 음악비평가들이 예술적 성과가 뛰어난 젊은 음악가에게 주는 상인 이탈리아 시에나의 아카데미아 무지칼레 키자나 상을 수상했다. 1992년, 그라미 시상식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 받아 전세계 10억 명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연주 하였으며, 1995년에는 뮤지컬 아메리카가 수여하는 올해의 기악상 부문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다. 1997년 러시아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트라이엄프 상을 최연소로 수여 받았고, 이외에도 맨하튼 음대 명예 박사, 쇼스타코비치 상, 영국 왕립음악원 명예 회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홍콩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키신의 가장 최근 음반은 DG에서 발매된 베토벤 소나타이다. 그의 방대한 디스코그래피는 키신의 명연으로 피아노의 걸작들을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클래식 역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세계 저명한 음반상을 모두 수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음반상을 받았는데, 에디슨 클래식 상, 황금 디아파종 상, 디스크 그랑프리 상, 그라미 상, 에코 클래식 상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에는 아쉬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음반으로 2010 그라미 상을 수상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누펜 감독은 키신의 비범한 재능에서 영감을 받아 <Evgeny Kissin: The Gift of Music>이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2000년 출시 되었다.

# EVGENY KISSIN

PIANIST



Evgeny Kissin's musicality, the depth and poetic quality of his interpretations, and his extraordinary virtuosity have earned him the veneration and admiration deserved only by one of the most gifted classical pianists of his generation and, arguably, generations past. He is in demand the world over, and has appeared with many of the world's great conductors, including Abbado, Ashkenazy, Barenboim, Dohnanyi, Giulini, Levine, Maazel, Muti and Ozawa, as well as all the great orchestras of the world.

Mr. Kissin was born in Moscow in October 1971 and began to play by ear and improvise on the piano at the age of two. At six years old, he entered a special school for gifted children, the Moscow Gnessin School of Music, where he was a student of Anna Pavlovna Kantor, who has been his only teacher. At the age of ten, he made his concerto debut playing Mozart's Piano Concerto K. 466 and gave his first solo recital in Moscow one year later. He came to international attention in March 1984 when, at the age of twelve, he performed Chopin's Piano Concertos 1 and 2 in the Great Hall of the Moscow Conservatory with the Moscow State Philharmonic under Dmitri Kitaenko. This concert was recorded live by Melodia, and a two-LP album was released the following year. Given the astounding success of this recording, Melodia proceeded to release five more LPs of live performances in Moscow over the following two years.

Mr. Kissin's first appearances outside Russia were in 1985 in Eastern Europe; his first tour of Japan in 1986; and in December 1988 he performed with Herbert von Karajan and the Berlin Philharmonic in a New Year's concert broadcast internationally. In 1990 Mr. Kissin made his first appearance at the BBC Promenade Concerts in London and, in the same year, made his North American debut, performing both Chopin piano concertos with the New York Philharmonic, conducted by Zubin Mehta. The following week he opened Carnegie Hall's Centennial season with a spectacular debut recital, recorded live by BMG Classics.

During the 2018/19 season, Mr. Kissin gives solo recitals in Vancouver and San Francisco before embarking on an extensive tour of Asia which includes recitals in Taipei, Hong Kong, Seoul, Yokohama, Tokyo and Osaka as well as a tour of Japan with the Bavarian Radio Orchestra under Mariss Jansons and an appearance with the Hong Kong Philharmonic. In Europe, he performs with the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Czech Philharmonic,

Berlin Philharmonic among other orchestras. In addition to touring major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ities with a solo recital program of Chopin, Schumann, Debussy and Scriabin, he partners with Itzhak Perlman for duo recitals in Boston, New York, Washington DC and Chicago.

Musical awards and tributes from around the world have been showered upon Evgeny Kissin. He received the Crystal Prize of the Osaka Symphony Hall for the Best Performance of the Year in 1986 (his first performance in Japan). In 1991 he received the Musician of the Year Prize from the Chigiana Academy of Music in Siena, Italy. He was special guest at the 1992 Grammy Awards Ceremony, broadcast live to an audience estimated at over one billion, and three years later became Musical America's youngest Instrumentalist of the Year. In 1997 he received the prestigious Triumph Award for his outstanding contribution to Russia's culture, one of the highest cultural honors to be awarded in the Russian Republic, the youngest ever awardee. Mr. Kissin has been awarded an Honorary Doctorate of Music by the Manhattan School of Music; the Shostakovich Award, one of Russia's highest musical honors; an Honorary Membership of the Royal Academy of Music in London; and most recently an Honorary Doctorate of Letters from the Hong Kong University.

Mr. Kissin's newest release is an album featuring Beethoven Sonatas on the Deutsche Grammophon label. His previous recordings have received numerous awards and accolades, having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library of masterpieces recorded by the world's greatest performers. Past awards have included the Edison Klassiek in The Netherlands, and the Diapason d'Or and the Grand Prix of La Nouvelle Academie du Disque in France. His recording of works by Scriabin, Medtner and Stravinsky (RCA Red Seal) won him a Grammy in 2006 for Best Instrumental Soloist. In 2002, Mr. Kissin was named Echo Klassik Soloist of the Year. His most recent Grammy for Best Instrumental Soloist Performance (with orchestra) was awarded in 2010 for his recording of Prokofiev's Piano Concertos Nos. 2 and 3 with the Philharmonia Orchestra, conducted by Vladimir Ashkenazy (EMI Classics).

Mr. Kissin's extraordinary talent inspired Christopher Nupen's documentary film, *Evgeny Kissin: The Gift of Music*, which was released in 2000 on video and DVD by RCA Red Seal.

## 프레드릭 쇼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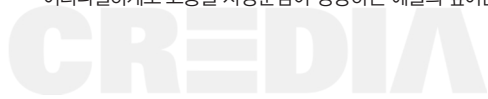
### 녹턴 Op. 55-1 f단조

### 녹턴 Op. 62-2 E장조

미세하게 떨리는 프레드릭의 손끝이 피아노 건반을 스치는 순간, 그 소리는 연기처럼 날아올라 달이 뿜어내는 달무리로 변한다. 누군가 쇼팽은 달빛에 펜을 적서 악보를 그린다고 했던가. 더없이 환상적인 이 장면 한구석, 시크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응시하며 담배를 피우는 조르주 상드의 모습이 있다면 그 음악의 순수함이 더욱 도드라질 것 같다.

쇼팽의 피아노곡이 지닌 테이스트 중 고상하고 우아하며 조금은 사치스런 세련됨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야상곡 이상의 선택은 없을 것이다. 시인이 지닌 서정성의 핵심을 관통하는 21곡의 걸작은 '감상성'이라는 특성을 필연적으로 지닌다. 과도하게 올라온 감정이 기분좋은 허세와 가식을 내포하게 된다 해도, 그것이 쇼팽의 '달빛 노래'가 지닌 본질임을 인정해야 할 터, 천재의 성숙함이 이상적으로 발휘된 후기의 작품들은 그 무게감이 발라드와 스케르초에 못지 않다. 가늘게 솟아나는 멜로디 진행보다 아래로 떨어지며 포용하는 선율선은 아픔 속에 빛났던 젊은 대가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우울함이 매우 깊게 드리운 작품 55-1 f단조(1843)는 주목받는 일은 드물지만, 작곡가가 자주 빠지곤 했던 슬픈 상념을 여과없이 그려낸 작품이다. 장조와 단조를 오가는 완만한 멜로디가 도입부를 이루며, 셋잇단음표와 화음 진행이 번갈아 나타나며 조옮김을 하는 부분이 트리오다. 첫 부분의 재현은 선율의 아름다운 변주인데, 셋잇단음표의 분방한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1846년 출판된 작품 62-2 E장조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출판된 녹턴 중 한 곡이며 대위법적인 화려함과 교묘하게 다듬어진 감성 표출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폭이 넓고 깊은 4분음표 반주로 시작하는 도입은 이내 잘게 움직이는 왼손 움직임으로 인해 유연하게 변화하며, 아지타토의 지시어를 통해 흥분된 분위기로 바뀐 중간부는 다성부 진행이 작곡가가 지닌 복잡한 감정의 흐름을 느끼게 만든다. 창작 당시 상드와의 불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로 인해 건강도 악화되었지만 아 이러니컬하게도 고통을 자양분삼아 성장하는 예술의 깊이는 더 할 수 없이 깊어진 모습이다.



## 로베르트 슈만

###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 Op. 14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악 작품에 대해 평가할 때 맨 처음 등장하는 내용은 악기 하나하나마다의 솔로적 특성이 덜 나타나며 합주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의 오케스트레이션의 특성은 악기들 고유의 음색을 다양하게 나타내려는 시도보다 다양한 앙상블에서 나오는 뉘앙스 변화와 작곡가의 장기인 화성의 교묘한 발전과 움직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런 전제를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곡을 쓰기 이전, 그의 '피아노시대'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슈만의 피아노곡을 화성의 겹침과 그 자연스런 부딪힘, 거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음향이라는 측면으로 대입시켜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오케스트라가 없는 협주곡'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작품 14가 그 호기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의 작품 가운데 유례없는 기교적 화려함으로 가득 찬 작품이지만, 이 인상적인 제목이 확대된 스케일만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여러 차례의 고민과 이에 따른 개작, 정리를 거쳐 만들어진 f단조의 소나타가 맨 처음 출판된 것은 1836년 9월이었다. 원래 두 개의 스케르초가 포함된 다섯 악장이던 것을 출판사의 권유로 스케르초를 제외한 3개의 악장으로 발표했다. 그 후 최만년인 1853년에 나온 개정판에는 초기에 만든 스케르초 중 첫 번째 것을 2악장으로 넣어 4개의 악장으로 정리했다. 이 작품이 흔히 소나타 2번으로 불리는 작품 22보다 출판 번호는 빠른데 '3번'으로 불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1853년 출판 때는 '그랜드 소나타'라는 이름도 붙었다.



화려한 알레그로인 1악장은 힘차게 상승하는 도입부의 인트로에 이어 강한 열망을 지니고 하행하는 1주제가 나타난다. 슈만 특유의 고집스런 붙점리듬은 2주제에서 등장하며, 이 리듬은 전개부에서도 주된 소재가 되고 있다. 역세고 강한 성격으로 브람스를 연상시키는 2악장 스케르초는 bb단조로, 대규모의 3부 형식이다. 상행과 하행이 겹쳐 이루어지는 1주제와 스타카토와 레가토가 대조를 이루는 2주제도 인상적이지만, 다소 차분해지며 명상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트리오 부분은 달콤하게 다가온다. 클라라가 만든 안단티노 주제와 4개의 변주로 이루어진 3악장은 질은 비장미에서 작곡가의 독자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자유로운 변주로 구성되어 유연하게 이어지며, 특히 리드미컬한 요소의 3변주와 따로 발전부를 둘 정도로 대규모인 마지막 4변주의 심각함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정열을 넘어 열광적인 속도의 셋잇단음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4악장은 '가능한 매우 빠르게'라는 지시어가 붙어있다. 숨가쁘게 이어지는 1주제와, 따뜻한 동경이 느껴지는 2주제는 분주한 반주음형으로 숨가쁜 모습을 보이며 달려간다. 발전부에는 두 개의 주제가 서로 겹쳐 더욱 타이트하게 변하는데, 카덴차 풍의 패시지 후 이어지는 최종 마무리 직전의 코드도 발전부와 비슷한 분위기다.

##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 프렐류드 Op. 23, 1-7번

작곡 경험이 없어 확실치는 않지만 곡을 만든 사람이 성공을 확신하는 곡, 스스로 사랑하는 곡, 그리고 실제로 히트를 기록해 영원히 기억되는 곡 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걸작에도 불구하고 라흐마니노프의 경우에는 작품 3-2의 프렐류드 c#단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한 체구를 지닌 러시아 정교회의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화음, 묵직하면서도 장중한 멜로디, 작곡가 특유의 소용돌이치는 듯한 기교적 패시지 등이 적절하게 어울린 명품임에 틀림없지만, 이 곡의 '지나친' 인기 때문에 다른 피아노곡들이 소외되곤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불만이었던 후문이다. 그럼에도 라흐마니노프는 쇼팽 이후에 나타난 대부분의 피아노 작곡가들이 그랬듯이 프렐류드의 연작을 진작부터 계획했다. 처음부터 스물 넷이라는 숫자를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스쳐가는 영감과 피아니스트로서의 템페라멘트가 스파크를 일으켜 멋진 흔적을 남기는 '짧음의 미학' 프렐류드가 주는 매력은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만들어진 일련의 프렐류드들은 라흐마니노프 오리지널리티로서의 의미와 함께 러시아의 피아니즘이 19세기적 양식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낭만주의 최후의 불꽃이라는 평가를 달아도 좋다.

1903년부터 이듬해까지 쓰여진 작품 23의 프렐류드 열 곡은 작곡가의 의욕과 열정이 정신과 육체 양면에서 절정에 달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최면 요법으로 슬럼프에서 재기해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대성공을 거둔 후 첼로 소나타, 쇼팽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의 대작이 연거푸 발표되었다.

**1번 f#단조** - 라르고 (매우 느리게)의 지시어이지만 유창한 느낌이다. 작곡가 특유의 반음계적 기법과 이를 주된 아이디어로 이용해 텍스트에 살을 붙여가는 방법이 세련돼 있다. 묘한 긴장감이 돋보이는 곡.

**2번 Bb장조** - 여기저기 폭죽이 터지는, 러시아의 떠들썩한 축제를 떠올리게 하는 명곡이다. 폭이 넓은 아르페지오 음형의 왼손이 거친 파도를 묘사하며, 그 위에 두터운 텍스트의 멜로디가 얹힌다. 시종 화음 연타와 아르페지오, 당김음 기법 등으로 화려한 피아니즘을 나타낸다.

**3번 d단조** - 미뉴엣 풍의 템포이나 평화롭다기보다 어딘지 주저하는 모습의 흔들리는 감성이 매력적이다. 3도, 옥타브 진행, 변덕이 심한 액센트 등으로 연주하기에 까다로운 곡이나 오랜 여운이 남는다.

**4번 D장조** - 작곡가 자신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그린 사랑의 노래. 순차 진행으로 이어지는 라흐마니노프 스타일의 달콤한 멜로디가 색채감 풍부한 아르페지오로 장식된다. 후반부 재현에서는 고음역의 장식음이 보석처럼 아름답다.

**5번 g단조** - 행진곡 풍의 악상은 처음 듣는 이들에게도 강한 매력을 전달하는 힘이 있다. 트리오에 등장하는 멜로디는 러시아 특유의 센터멘탈이 넘치는데, 여기에 붙는 대선율이 그 감상성을 더욱 짙게 만든다.

**6번 Eb장조** - 안단테(느리게)의 지시어로, 4번과 유사한 녹턴 풍의 악상이나 왼손의 움직임이 16분음표로 좀더 복잡하며 여러 가지 정서를 전달한다. 눈에 띄는 커다란 클라이막스를 형성하지 않은 채 부드러운 마무리를 한다.

**7번 c단조** - 알레그로(빠르게). 조성이 같다는 이유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쇼팽의 연습곡 '혁명' 과의 유사점이 느껴진다. 아라베스크적인 패시지가 양손을 오고가며 넘실대는 강약 대비가 숨가쁘게 이어지는데, 이를 위해 연주자의 능수능란한 기교가 요구된다.

---

##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 프렐류드 Op. 32 10, 12, 13번

1910년 2월, 라흐마니노프는 성공적인 미국 순회 연주를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왔다. 협주곡 3번을 뉴욕에서 연주해 성공을 거두었고, 자신의 지휘로 교향곡 2번 등을 소개해 역시 호평을 받았다. 앞서 작곡된 11곡의 프렐류드를 생각해 13곡을 맞춰 작품 32로 발표한 것도 여러 성공에 이은 자신감이었다.

**10번 b단조** - 작품집 전체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한 대곡이다. 라흐마니노프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조국을 생각나게 하는 곡이라며 제일 사랑한 프렐류드이기도 하다. 처음에 등장하는 모티브는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 2번을 연상시키며, 미련과 여운을 남기며 망설이는 걸음걸이같은 주제의 분위기는 중간부의 연속되는 화음연타와 환타지적 전개에서도 바뀌지 않고 지속된다. 한 편의 짧은 발라드라고 하겠다.

**12번 g#단조** - 오른손에서 아르페지오 반주, 왼손으로 중음역대에서 서정적 멜로디를 노래하는 방법은 작곡가의 트레이드마크같은 수법이다. 오른손의 장식이 점차 복잡해지다가 중간부에 들어서서 주도권을 옮겨 극적인 순간을 연출한다. 향수에 시달리는 러시아인의 정서가 그대로 묻어나오는 매력적인 곡이다.

**13번 Db장조** - 그라베 (매우 느리게) - 24곡의 대미를 장식한다.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짧은 모티브가 전곡을 지배하며 전개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주제로 느껴질 만한 새로운 모티브 없이 단일한 기분을 유지하여 거대한 흥분과 뒷맛이 개운한 종지를 향해간다. 관현악적인 효과를 노린 텍스트의 중첩도 성공적이다.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25년만에  
도이치 그라모폰과  
독점계약한

예브게니 키신  
라이브 실황 녹음

# EVGENY KISSIN

## BEETHOVEN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번, 14번, 23번, 26번

"이 앨범은 연주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내게 라이브 레코딩은 스튜디오 레코딩보다 더 의미가 있다. 그건 관객을 위해 연주할 때 더 많은 영감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건 내게 큰 의미가 있다." - 키신

이번 앨범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키신이 가졌던 공연들 중 큰 영감을 주었던 비엔나의 '무지크페리안과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 등에서 연주한 공연 실황이 담겼다.

2006년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에서 선보인 피아노 소나타 3번 Op.2 No.3를 포함하여 월광 소나타, 열정 소나타 등이 수록됐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거추장스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단순한 생활을 동경하게 된다. 하지만 예술이 직업인 사람에게 말 뜻 그대로의 '단순'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바, 수많은 실험과 탐구, 시행착오와 좌절 끝에 찾게 된 나만의 길을 깔고 다듬어 외부에서 보아 평탄하고 꾸준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덧 대가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내가 아는 피아니스트 중 인생 속의 이런 이상적인 외관을 가장 훌륭히 가꾸고 있는 인물은 예프게니 키신이다. 음악가로서의 활동 영역이나 환경을 바꾸거나, 프로필 상에 굵은 글씨가 어울리는 깜짝 '혁신' 없이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크고 굳건하게 확대시키는 피아니스트로 키신 이상의 존재는 찾기 힘들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키신의 '단순한' 활동이 21세기 뮤지션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두드러지고 튀는 모습이 된 지 오래다. SNS나 그 외 미디어를 통한 노출이나 인터뷰도 최소한으로 조절하는 그는 오로지 음악만, 피아노만 한다. 베르비에 페스티벌을 포함한 일부 이벤트성의 무대에서 가까운 동료들과 앙상블 연주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내악이나 새로운 컨셉의 기획에도 별 관심이 없다. 말과 글로 만들어지는 음악 외적인 미사여구를 뒤로 하고 건반에만 집착하듯 매달려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예외없이 최고의 평가를 얻어낸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깝다.

키신에 대한 글을 쓰면서 여러 차례 그가 지향하는 레퍼토리에 대해 언급했다. 어느 작곡가이건 예외없이 생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전성기 때의 걸작들을 선곡하여 굵직한 성과를 뽐내곤 하는 그의 무대와 음반들은, 사실 많은 비교가 불가피한 어려운 길을 걸으며 나온 결과물이다. 수많은 선배들이 쏟아낸 탁월한 해석들 앞에서 다시 한 번 피아니즘의 마스터피스들을 다루는 키신의 자세는 그러나 늘 확고하다. 텍스트를 고지식할 정도로 왜곡없이 재현하며, 창작 전후에 나타나는 작곡가들의 감성의 편린을 정확히 집어내 마치 확대경을 들이댄 것처럼 명확하게 그려낸다.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음표들이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언어적 구체성으로 탈바꿈시켜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보이는 그의 해석은 처음 듣는 이들에게도 강한 설득력을 띤다. 과거에는 이런 능력이 오직 천분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느껴졌으나, 데뷔 당시 지나치게 무거운 터치와 딱딱하고 억지스럽게 들렸던 스토리 연출로 지적받던 그가 고유의 스타일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오히려 장점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사실 하나라도 그 노력이 얼마나 지남했는지 짐작된다.



그의 '모범적' 활동에서 흥미를 끄는 부분은 이따금 등장하는 음반 속 작품 배치다. 완전히 다른 상성을 지닌 작품을 잇달아 연주해 연주자가 지닌 피아니즘의 폭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만드는 수법을 쓰기도 하고, 같은 작곡가가 쓴 상반된 분위기의 작품을 함께 연주하며 그 인물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기도 한다. 세자르 프랑크의 '프렐류드, 코랄과 푸가'와 브람스의 '파가니니 변주곡'을 조화시킨 1998년 작이나 같은 해 소개된 바흐-부조니의 '샤콘느'와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가 실린 음반은 지금도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다.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과 글린카-발라키레프의 '종달새'를 담은 앨범(2002)과 스크랴빈, 메트너의 작품을 담은 음반(2005) 등은 그의 적극적인 러시아 사랑을 엿보게 하며, 슈베르트의 소나타 D960을 시작으로 리스트의 가곡 편곡을 거쳐 '메피스토 왈츠'로 끝맺은 2004년 작은 초기 낭만주의 비르투오시티의 이상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40대 이후의 행보에서, 반갑게 출시되었던 작년의 베토벤 앨범은 약간이지만 '다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들이 흥미롭게 다가온 결과물이었다. 실황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담은 것을 포함해, 악성이 피아노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관현악적 음향구조와 판타지를 여과없이 나타내려 노력한 부분은 좀 더 깊은 베토벤 탐구로의 길을 짐작케 한다.

그의 오래된 팬들이 조심스레 새로운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서의 방향을 짐작하고 있는 지금, 키신은 다시 한 번 자신의 본령인 러시아-동유럽-낭만이라는 큰 줄기의 프로그램으로 익숙하지만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산전 수전을 다 겪은 쇼팽과 슈만의 레퍼토리 중에서는 작곡가의 완숙기를 맞아 그 성숙함이 절정에 이른 무게감있는 작품들을 선택했다. 21곡에 이르는 쇼팽의 야상곡 중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두 곡은 규모와 깊이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문제작들이다. 거침과 부드러움, 열정과 사색을 끌고루 나타내 호평받았던 슈만의 세계에서는 대곡인 소나타 3번 f단조를 연주된다. 오케스트라적 웅대함과 호방한 악상이 이색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는 명품이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니즘의 정수,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만을 모은 전주곡들은 정제되고 세련되어진 러시아 피아니즘의 바람직한 모범답안을 제시할 것이다. 많은 팬들을 지니고 있는 작품 23에서 7곡, 거대한 프로젝트의 마무리인 작품 32의 10, 12, 13번 프렐류드가 준비돼 있다.

아주 드물게 만날 수 있는 그의 인터뷰(2011)에, 늘 짝막하게만 대답하는 그의 문장 하나가 기억에 남는다. '당신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이라는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하던 키신은 이렇게 답한다. "내 자신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내 성격의 특징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무대에서 진짜 '예프게니 키신'을 만나게 되는 모양이다.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_ 클럽발코니 2018년 10월호 기사 전재

# 클래식의 역사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

BERLIN · HAMBURG · HANNOVER · HONG KONG · LONDON  
SHANGHAI · TAIPEI · TOKYO AND SEOUL

# 12

YEARS  
OF

## DEUTSCHE GRAMMOPHON ANNIVERSARY CONCERT



##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 기념 갈라콘서트

조성진, 안네 소피 무터 그리고 정명훈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2018.12.6** THU  
조성진

**12.7** FRI  
안네 소피 무터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PRESENTER | ARTS & ARTISTS  
A UNIVERSAL MUSIC COMPANY

CREEDIA  
INTERNATIONAL

TITLE SPONSOR | Mercedes

OFFICIAL SPONSOR | kakao

SUPPORTER | UNIVERSAL

KOREAN AIR

TICKET | R석 20만원 | S석 16만원 | A석 12만원 | B석 8만원 | C석 5만원 | BOOKING | Melon 1899-0042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Club BALCONY 1577-5266 (회원전용)

12.6 | 모차르트 피아노 콘체르토 20번 d단조 K.466 (행연 조성진)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 12.7 |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Op. 26 (행연 안네 소피 무터)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 음반으로 듣는 키신의 발자취

에브게니 키신의 음반을 보면 바흐부터 흐레니코프까지 섭렵하고 있지만, 사실상 슈베르트·쇼팽·슈만 등 19세기에 과몰입되어있다. 심지어 바로크 음악은 바흐가 유일하며, 현대음악은 전혀 손대고 있지 않다. 많은 연주를 감당해야 하는 스타 연주자에게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의 기량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 하이든과 슈베르트



키신은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세 작곡가인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을 모두 녹음했다. 하지만 하이든은 다른 두 작곡가보다 비중이 현격히 적다. 17세인 1988년에 녹음한 피아노 협주곡 11번, 그리고 23세인 1994년에 녹음한 피아노 소나타 45번 A장조, Hob.(흔히 쓰는 작품번호 Op.는 곡의 출판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Hob.는 하이든의 작품을 정리해 A.V.Hobok란 사람이 만든 개념으로서 작곡 순서를 표현하는 단어다) XVI:30과 피아노 소나타 62번 Eb장조 Hob. XVI:52이 전부. 하지만 그의 기량은 시대와 작곡가에 구애받지 않고 고르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 피아노 소나타, Hob. XVI:52는 하이든의 마지막 소나타로서, 개량된 피아노가 갖는 중후한 화음을 맘껏 활용하는 작품이다. 키신은 이 할 것 많은 작품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음악적 위트에 무게감이 지나치게 실리지 않도록 조절한다. 이것은 앞의 작품과 지나치게 비교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하나의 앨범 또한 하나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와 함께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A단조 D784가 함께 수록되어있다. 반복되는 특징적 패시지에 나름대로의 성격을 부여하고 퍼즐을 맞춰가는 진행은, 슈베르트 특유의 고독과 방향에 대한 공감보다는 이 곡을 정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먼저 보이게 한다. 그럼에도 그의 연주는 슈베르트가 주제의 발전이 아니라 주제의 반복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모차르트



키신은 모차르트에 많은 관심을 보인 편은 아니다. 무대에서 협주곡을 종종 연주하기는 하지만, 녹음은 몇 곡뿐이다. 20세 전후에 12번과 20번, 한참을 지나 35세 때 24번, 2년 후에 20번과 27번을 녹음했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새로운 녹음을 내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근 모차르트 녹음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키신이 직접 지휘했기 때문이다.

피아노 협주곡 20번은 D단조라는, 모차르트에게 흔치 않은 조성이기에 자주 언급된다. D단조의 경우 오페라 '돈 조반니' 중 지옥 장면과 '진혼곡'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모차르트에게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래서 시작과 함께 무섭게 달려드는 관현악 서주 부분은 '돈 조반니'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키신의 피아노 연주는 관현악에 동참하기보다는 관조한다. 아가자기한 패시지들을 돋보이게 하고 서정적인 선율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은 어린 시절의 연주 스타일과 많이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극적이기보다는 고전적인 표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카덴차는 베토벤의 것을 사용했다. 피아노 협주곡 27번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으로, 피아노의 활약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래서 보통 피아노를 화려하고 돋보이게 연주하곤 하지만, 키신은 오히려 앙상블의 일원으로 위치시킨다. 이것은 직접 지휘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 베토벤



최근에 다섯 곡의 소나타를 두 장의 음반에 수록한 앨범을 발매하여 그가 바라보는 베토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게 베토벤의 소나타는 아직 도전과제에 머물러 있다. 키신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회에서 베토벤 '환상곡'의 솔리스트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가 베토벤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이 되어서였다. 제임스 러바인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전격적으로 피아노 협주곡 2번과 협주곡 5번 '황제'를 녹음한 것이다. 이후로 소나타와 소품을 연달아 내놓았으며, 2008년에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와 함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내놓기에 이른다. 만 25세의 청년이 베토벤 협주곡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거칠 것 없는 과감함과 젊음으로 무장된 산뜻함보다는, 이미 완숙의 경지에 이른 앙상블로서의 조화였다. 느린 악장에서는 비교 대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진실 어린 감성을 전달한다. 이러한 특징은 심지어 '황제 협주곡'에서도 나타난다. 첫 아르페지오부터 강렬하고 압도적인 분위기가 아닌, 구도자의 발걸음으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 쇼팽



키신이 오늘날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84년의 실황 연주가 1986년에 발매되면서였다. 바로 드미트리 키타엔코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쇼팽의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 음반이다. 소비에트 키즈를 상징하는 붉은 머플러를 목에 매고서 고개를 약간 치켜들고 지그시 눈을 감은 매끈한 소년의 연주 사진도 인상적이었지만, 당차게 등장하는 피아노 소리가 이 옛된 소년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 음반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이후 키신은 곧 쇼팽으로 통했다. 그래서 많은 연주회에서 쇼팽을 연주했고, 음반 또한 쇼팽에 집중되었다. 초기에는 마zur카와 여러 소품을 녹음했다면, 1998년에 녹음한 네 개의 발라드와 이듬해 24개의 전주곡으로 쇼팽에 보다 진지해졌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2004년 베르비에 음악제에서 네 곡의 폴로네이즈와 세 곡의 즉흥곡, 그리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즉흥환상곡'을 연주하여 또 하나의 완벽한 쇼팽 프로그램과 앨범을 선보였다. 폴로네이즈에서 그는 낭만적 표현에 집중하며, 다양한 루바토를 구사하여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낸다. 함께 녹음된 즉흥곡들은 빠른 속도와 밝은 분위기로 폴로네이즈와 대비된다. 하지만 대비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 전체를 진지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키신의 의지가 보이며, 그러한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다. 그래도 '즉흥환상곡'은 모두가 기대하는 화려함 그 자체를 들려준다.

## 슈만



키신이 쇼팽 다음으로 자주 녹음한 작곡가는 리스트와 슈만이었다. 그런데 리스트로는 단 한 장의 단독 음반도 없다. 반면 키신은 2001년에 소나타 1번과 '카니발'을 수록한 슈만 앨범을 녹음했다. 이전에 '아베크 변주곡' '교향적 연습곡' '크라이슬러리아나' '환상곡' '아라베스크' 등을 오랫동안 차근차근 섭렵하면서 슈만을 정복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쇼팽 컬렉션처럼, 후에 이들을 모아 슈만 컬렉션 음반이 발매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발매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과 협연한 피아노 협주곡의 1992년 실황 앨범은 그가 한 단계 성장한 계기가 되었다. 만 20세 키신의 연주는 정확하고 명료한 타건이 돋보인다. 이러한 스타일은 이후 협주곡 녹음들과 비교하면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슈만의 성격 강한 화음과 빠지지 않는 관현악 음량과의 경쟁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음악을 리드하기보다는 줄리니에 이끌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2006년에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이 곡의 두 번째 녹음에서 음악을 리드하는 여유 있는 모습과 사뭇 비교된다.



### 프로코피에프



키신은 러시아 출신으로서 러시아 레퍼토리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라흐마니노프·스크랴빈·프로코피에프에 관심을 가져왔고 음반도 여럿 남겼다. 라흐마니노프의 경우는 피아노 협주곡 2·3번과 연습곡을, 스크랴빈의 경우는 소나타 3번과 여러 소품을, 프로코피에프는 소나타 6번과 피아노 협주곡 1~3번 및 여러 소품을 녹음한 음반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주 연주되는 차이콥스키와 쇼스타코비치는 피아노 협주곡 1번만을 녹음했다. 그래도 키신의 러시아 레퍼토리에 대한 접근은 유럽의 고전이나 낭만과는 사뭇 다르다. 어떠한 기준이나 공통의 가치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직감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3번의 실황 녹음에서 이러한 모습이 눈에 띈다. 독주 분량이 많은 피아노 협주곡 2번에서는 첫 주제의 연주에서부터 남다른 긴장감을 지속하고, 제2주제에서도 감각적으로 음악을 리드하면서 신뢰감을 준다. 피아노 협주곡 3번에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바탕에 있으면서 시나리오에 의존하여 과장되지 않고 음악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키신의 수준 높은 예술적 감각을 보여준다.

### 티혼 흐레니코프



키신이 녹음한 작품 중 가장 최신의 작품은 티혼 흐레니코프가 1972년에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2번일 것이다. 흐레니코프는 1948년에 스탈린에 의해 소련작곡가연합의 총서기장에 임명된 후 소련이 해체된 1991년까지 무려 43년간 자리를 유지한 인물로, 소련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작곡가였다. 그는 쇼스타코비치 등을 '형식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했던 데 앞장서는 등 중오의 대상이었는데, 놀랍게도 소련 해체 이후에도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남아있었고,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했다. 키신이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가 지휘로 흐레니코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한 것은 1988년으로, 아직 소련이 존재했던 때였다. 이 앨범은 모스크바 방송국 소속의 차이콥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소련의 신동들과 함께 제작한 것으로, 독주자로 이름을 올린 키신과 바딤 레핀은 17세였으며, 막심 벵게로프는 불과 14세였다. 키신은 강력한 타건과 명확한 리듬을 들려주며,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음표들의 공세에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돌진한다. 또한 불협화음과 같은 두드러지는 음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곡의 극적 흐름을 자극한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리스트) \_ 객석 2018년 10월호 기사 전재



슈베르트를  
위한  
완벽한 밤

Sangwook Lee

# 임동혁의 슈베르티아데 SCHUBERTIADE

임동혁 | 리처드 용재 오닐 | 스테판 피 재키브 | 문태국 | 성민제 | 김두민

2018.12.26(수)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8pm Wednesday, December 26, LOTTE CONCERT HALL

슈베르트 | 피아노 소나타 제 13번, 네 손을 위한 환상곡, 피아노 5중주 '송어'  
F. Schubert | Piano Sonata No.13 in A major, D.664, Fantasy in F minor D.940 Piano Quintet Op.114, D.667 'The Trout'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